

봉인된 시간. 4

신경숙
소설가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 이곳에 생길 줄은 몰랐는데요?

4.3 때 가족이 모두 학살 당하고 혼자 살아남아 후박나무 아래에서 아침마다 일생을 술을 마시며 살다가 이태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아저씨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잠깐 생각해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아 나는 유정 씨에게 애먼 자전거 빌려주는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미 지나쳐온 그 집을 돌아다보았습니다. 나의 눈속에서 그 집 낮은 담장 위의 소라 껍데기, 혹은 전복 껍데기가 빛 속에서 반짝거려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저 살짝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도 퉁퉁 부어있는 눈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문득 오년 전에 내가 이곳에 머물 때 아저씨가 저 후박나무 아래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고 있었든 그 일을 멈추고 귀를 바짝 세우고 그 노랫말을 알아 들으려고 애쓰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습니다. 유정 씨가 그 아저씨의 가족이 4.3 때 모두 학살 당했다고 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때는 끝내 알아들을 수 없던 그 아저씨가 흥얼거리던 노랫말이 저절로 해독되어 이미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 왔다는 것ですよ. 걸음을 땔 때마다 그 아저씨의 노랫소리가 귀에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정 씨 보폭 보다 한 발 앞서 걸었습니다. 유정 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걸으세요, 하며 자신도 보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자전거 탈 줄은 아는 거지요?

유정 씨의 목소리가 일렁이다 멀어지는 바람 속에서 잘려나갔습니다.

-왜요? 자전거 같은 거 못 탈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요, 잘 탈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물어요?

-대답을 하나 안하나 보려고요.

유정 씨는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이상한 지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자전거 빌려주는 집은 마을 안의 초등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난 듯이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초입에 세워져

있는 몇 채의 빌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에는 빌라를 짓느라 기초를 닦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완성
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고동색과 아이보리 색이 섞인 드라이빗 공법의 외벽은 새 건축물 분위기를 물
씬 풍기며 서 있더군요. 내게만 그리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는 어쩐지 이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
어요. 나지막한 돌담도 크고 작은 후박나무도 없이 빌라의 1층은 자동차를 세울 수 있게 주차장으로 만들
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주차장엔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 그래 타지에서 아이를 가진 이주민들이 이사를 왔나요?

내가 빌라를 바라보며 묻자 그걸 잊지 않았네요? 중얼거리며 유정 씨도 빌라 쪽을 돌아다보았습니다.
마을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없자 전쟁 후에 지어진 이곳 초등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5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에는 수령이 몇십 년 되는 나무들이 학교 앞과 뒤에 무성한 그늘을 이루며
살고 있지요. 5년 전에 이곳에서 머물 때 동네 산책을 하는 도중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소릿한
길을 따라 들어갔다 발견한 이 마을의 초등학교는 나를 단박에 사로잡았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초등
학교의 화단엔 이 섬의 꽃들이 만개해 있고 나무들은 학교의 앞뒤에 우뚝우뚝 서서 큰 그늘을 만들고 있었
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는 화단으로 들어가 발돋움을 해서 교실 안을 들여다봤는데 교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칠판 앞의 교탁과 그 앞에 학생들이 사용했음직한 책상과 의자들이 나란나란 놓여있고 그
텅빈 교실에 찾아든 별만 어롱어롱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운동장 가에 나란나란 심어진 오래
된 수령의 나무들 사이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초등학교에 사람의 기
척이 없는건지 궁금해서 그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유정 씨에게 학교가 왜 텅 비었느냐고 물었던 기억. 그
때 유정 씨의 대답은 마을에 학교에 다닐만한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폐교의 위기를 막고자 타지에서 이
주민을 받기로 했고 이주민들이 이 섬의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경우에 집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
았는데 수요가 꽤 되어서 마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때도
공동주택이라고만 했지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빌라라고 말해 준적도, 어디에 세워질거라는 것도 말한 적
이 없는데도 나는 자전거를 빌리러 가는 길에서 새롭게 지어진 빌라를 보는 순간 저곳인가 보다, 라는 생각
저절로 들었는데 틀리지 않았던 거지요.

- 의외로 이곳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 계획보다 공동주택이 더 많이 지어졌어요.

- 학생들도 많아졌겠군요.

- 예. 일학년은 없지만 이학년 셋, 삼학년 일곱, 사학년 넷, 오학년 열둘, 육학년이 여섯...그렇다고 들었
어요.

- 숫자를 다 알고 있네요?

내가 묻자 유정 씨는 그러네요, 내가 하며 웃었습니다. 유정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아이
들 양호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했습니다.

- 유정 씨가요?

내가 되묻자 유정 씨가 멋쩍게 웃으며 섬에 들어오기 전에 육지의 초등학교에서 양호선생님이었다고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다시 알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유정 씨의 전직이 한번도

학교 양호선생님이었을거라는 것은 짐작을 못했습니다. 집을 꾸며놓은 것을 보고, 특히 내가 묵고 있는 유정 씨의 집의 거실에 아일랜드 식탁을 유정 씨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유정 씨가 이 섬에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 쪽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상상했던 적은 있습니다. 다시 앞장서서 초등학교로 들어서는 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유정 씨가 혼잣말 하듯 웅얼거렸습니다.

- 갑자기 이런 얘기 이상할 테지만 나는 양호 선생이라는 내 직업에 만족했었어요. 어려서 어쩌다 할머니랑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아프면 내가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를 지켰거든요. 할머니는 한 밤에 열이 나곤 했었는데 그때면 나도 모르게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와서 수건을 적셔서 할머니 이마에 올려주곤 했었어요“

-…….

- 할머니 모시고 보건소 다니는 일도 어려서부터 했었어요. 할머니가 약을 순서대로 잘 드시게 하려고 약봉지에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 써서 붙이기도 하고 …… 할머니는 그렇게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챙겨주는 약을 드시다가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이 생각나요. 병실에서 나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셔서 내가 할머니 가까이 가자 두 팔로 제 머리를 안으시더니 내 귓결에 대고 고맙고 감사하다 …… 고 가쁜 숨을 쉬시며 말씀 하셨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나는 가도 되지야 …… 하시면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할머니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어린 나를 두고 가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시면서 버티셨다는거요.

나는 갑자기 듣게 된 유정 씨의 할머니 이야기에 유정 씨를 흘깃 바라보았다. 유정 씨는 담담해보였다. 그냥 어제 날씨가 어땠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 그렇게 양호선생이 되는 일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나를 찾아올 때면 할머니가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이들과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도 그랬어요. 배 아픈 아이는 배를 쓸어주고 운동장에서 무릎 깨져서 양호실에 오는 아이들 흐르는 피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밴드 붙여주고 하는 일들이 좋더라고요.

유정 씨는 애길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혼자서 가만 웃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유정 씨를 잘 알게 된다고 해도 저렇게 혼자 가만 미소짓는 그녀의 시간으로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겠지요. 내가 혼자 웃는 유정 씨를 바라보니까 유정 씨가 웃음을 거두고는,

- 죄송해요, 혼자 웃어서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도시에서 양호선생으로 재직할 때 어떤 여름날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수업 중에 양호실에 거의 실려다오다시피 했는데 내가 머리 어디가 가장 아프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인데 …… 생긋 웃으며 다 나았다고 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 유정 씨가 그런 데가 있어요.

- 내가요?

그렇습니다. 유정 씨에게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 구석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구석. 별 말을 안 하는데도 유정 씨 생각을 하면 어떤 쓰다듬을 받고 있는 느낌. 그리고 보니 선생님은 그런

구석을 더 강하게 지니고 계시지요. 제가 뉴욕에서 머물 때 언젠가 한번은 선생님이랑 맨해튼 외곽의 디아재단의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었지요. 쇠를 사용해서 둥근 원형의 작품들이 마치 책장처럼 펼쳐졌던 인상적인 전시였는데 그 전시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 기차를 타고 디아재단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 생각만 선명하게 납니다. 어쩌면 선생님은 잊으셨을 지도. 기차 안에서 무심히 차창 바깥을 내다보고 있던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팔을 펼쳐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시나 하고 팔을 내밀었더니 선생님이 몸을 약간 제 쪽으로 돌리시고는 제 팔을 조용히 쓸어내려 주셨어요. 어깨 쪽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계속해서 쓸어내려 주셨어요. 처음엔 왜 그러시나 하다가 선생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자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차창 밖의 스쳐지나가는 풍경을 무연히 내다보다가 그만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짧은 잠은 달콤하고 깊었어요. 슬며시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그때까지 제 팔을 가만가만 쓸어내리고 계셨어요. 디아재단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역에 이를 때까지 선생님이 제 팔을 쓸어내려주던 기억. 유정 씨가 양호 선생으로 만났던 피아노를 치기 싫어 두통에 시달리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이야기를 듣는데 선생님의 그 손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디선가 들으니 이렇게 무게 없이 바람결처럼 몸을 쓰다듬어 주면 새 기운이 고인대, 라고 지나가는 말씀처럼 말하셨지만 제게는 그게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기차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밤에 잠을 설쳐서 피로가 쌓여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기차에서 내렸을 때는 발걸음도 가볍게 선생님과 그 전시를 즐겼지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이렇게 자주자주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출몰해서 그 기운을 전해주는 것도 그 증명이지 않을까요. 말 수 적은 유정 씨가 자신이 양호선생으로 재직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선생님 이야기를 유정 씨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가만 참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유정 씨도 그런 사람 중의 한사람인 것 같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일인데,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입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이 팬데믹 시절에 살던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섬으로 들어와서 어제까지만 해도 유정 씨네 집 거실에서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군요, 꿈쩍하지 않고만 있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한밤중에 무슨 유령처럼 흐느적흐느적 몸을 일으켜 폭식을 해대던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유정 씨에 대한 예찬이 흘러나와서요. 유정 씨는 제 말을 들으며 또 가만 웃었습니다. 내가 멋쩍어져서 사실이에요, 하니까 유정 씨는,

- 그러게요, 내가 아이에겐 그런 존재였던 것도 같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 엄마 극성이 참 대단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하지 않으려고 했을 정도였어요. 집에 가면 밤이 깊도록 피아노 레슨을 받아야 하니까…….

제가 모르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유정 씨의 얼굴이 갑자기 쓸쓸해졌습니다.

- 그런데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내가 건네 준 약을 먹은 아이 하나가 그 약이 맞지 않았던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되었는데 나라는 사람은 그만한 그릇밖에 못되었는지 그 후로는 양호 선생 일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 이곳으로 왔는데..... 결국 다시 이 섬의 초등학교 양호선생님이 되었네요.

-좋은데요.

-폐교를 앞둔 학교의 대책이 통했다는 게 나에겐 신선했어요. 물론 이 섬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사연이 있을 것이고 이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아이들이 원해서 이 섬으로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이들이 옮겨 심어지는 나무같이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섬으로 이동해 와서 어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양호 선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자원을 했어요.

-급료는 받고 있는거지요?

유정 씨는 급료는 받고 있는거지요? 라는 제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밝고 맑게 큰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야지요.

그런 얘기를 나누며 오솔길 사이 건너에 있는 두 채의 무덤을 지나 자전거 빌려주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이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집이 항상 비어 있어서 5년 전에 그곳을 지나다닐 때면 고개를 빼고 안을 들여다봤던 작은 마당을 지닌 빈 집이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의 어느 집이나 다 그렇듯이 낮은 돌담이 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돌담 한쪽에 부재시에는 전화를 걸어달라는 표시와 함께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적힌 팻말이 걸려 있지 않았다면 그 집이 자전거 빌려주는 집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네요, 마당에 여러 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긴 했으니 다른 설명이 없어도 그게 표시가 되었겠군요. 유정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놓은 것인지 안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미리 한쪽으로 세워둔 자전거를 유정 씨에게 가리키며 방금 체인에 기름칠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유정 씨가 바퀴를 돌려보자 아주머니가 방금 바퀴에 바람도 ‘썰게’ 채워두었다고 발음하더군요. 아주머니가 바람 ‘썰게’ 채워두었다고 할 때에야 저는 아주머니 얼굴을 바로 봤습니다. 자글자글한 퍼머 머리에 그을린 얼굴의 이 곳 아주머니들의 일반적인 얼굴인데 말할 때마다 하얀 덧니가 드러났습니다. 덧니가 그렇게 하얗 수도 있다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유정 씨가 자전거 빌리러 가자고 했을 때 그 집의 주인이 남자일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챙겨주고 돈을 받고 해가 저물때까지만 반납을 하면 된다고 체크를 하면서 하얀 덧니를 내보이며 웃을 때마다 묘하게 같이 웃게 되었어요.

-어느 쪽으로 나가볼까요?

유정 씨는 먼저 자전거위에 올라타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바당 쪽으로 나가 봅소

유정 씨는 제게 묻는 것 같았는데 대답을 아주머니가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요즘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으니 바다 쪽으로 나가면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을 수 있을거라고 덧붙였어요.

- 그렇까요?

다시 동의를 구하는 유정 씨에게 그러자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은 눈 앞에 바다가 바로 보이지는 않으나 바다와 멀지 않습니다. 아마 자전거를 타고 십분 정도 가면 바다에 닿을 겁니다. 예전에 이 섬사람들은 어쩌든지 바다 쪽에 먼 곳에 집을 짓고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는 집이 바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곧 삶의 안전성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바로 바다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다 폭풍의 위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섬의 바람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바다의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안전거리는 20키로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어도 그쯤은 거리를 두고 집을 짓는 게 좋다고요.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 기준은 아니지만 예전엔 바닷가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보다 가난하다고 보면 맞다 했습니다. 저는 내륙에서 태어나고 내륙에서 자란 사람이라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얼핏 섬에서 살려면 기왕 매일 바다를 볼 수 있는 바닷가 쪽에서 사는 게 좋지 않나, 무심코 그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닷가 쪽에서 한 달 쯤만 지내보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해줬던 사람이. 그는 말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당장 열흘만 지나도 바다 쪽은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더군요. 특히 이곳 섬은 비와 바람이 많아서 매일 불어오는 모래 섞인 바람에 매일 창틀을 닦지 않으면 모래 먼지가 수북한데 아무리 좋은 창틀을 사용해도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모래먼지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요. 빨래를 널 수가 없고 설령 널어놓는다고 해도 습도가 높아서 잘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토박이로 사는 타지 사람들이 바닷가 쪽에 집을 지으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나 할 수 없이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육지에서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바닷가에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페달을 굴리며 먼저 출발한 유정 씨를 따라 자전거 위에 올라타면서 자전거에 달린 거울 속으로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부기가 빠지지 않아 통통한 눈자위를 잠깐 응시하다가 유정 씨를 뒤따라 페달을 굴렸습니다. (계속)